

## 信州大学での一年間の留学生活

2003年9月～2004年8月受入交換留学生  
韓国カトリック大学言語文化学部 3年  
朴 祉燕 (パク・ジヨン)

交換留学生として選ばれ、信州大学で勉強することになった時、とても嬉しかった。日語日本文化専攻の私は、以前から日本で留学す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た。外国語を学習することにおいて一番いい方法はやはり現地で自ら体験し、感じるのだと思っていたからだ。2003年10月1日、ついに松本に到着した。駅まで迎えに来てくれた日本人の友達との初対面。ようやく私が本当に日本へ留学に来たことを実感した。そして日本での新しい生活のために頑張ろうと決心した。

私は一年間の留学生活で、韓国では経験しにくいことをできるだけたくさん体験しようと思っていた。それで、まず日本のあちらこちらを旅行した。その中で特に印象的だった所は箱根。箱根の大涌谷ではへこんでいる峡谷と硫黄の煙、蒸気に包まれている散策路を歩きながら日本人たちがなぜこの火山地帯を‘地獄’と言うのか理解できるほど妙な雰囲気を感じた。また、韓国で日本映画「love letter」を見て一度行ってみたかった所の北海道が記憶に残っている。真っ白い雪を思いきり満喫したし、夜には華やかなイルミネーションの祭りを楽しみながら美しい札幌の夜景を十分感じた。旅行をすることで地域によって違う文化や雰囲気を感じ、日本の自然の美しさを味わえたことなどいい思い出になった。

日本の伝統衣装の着物を見に行ったこともある。多様な柄と色彩を見て今更のように着物の美しさに惚れた。特に、普通の着物とは違う沖縄地方の衣装と髪型、そして古典舞踊は印象深かった。また、日本浮世絵博物館にも行った。私は絵についてはあまり詳しくないけれども浮世絵を見て江戸時代の人々の日常の楽しみがよく描かれていると思った。浮世絵をよく見ることによって、過ぎ去った昔の日本人たちの風俗や習慣を学ぶことができたと思う。

日本に来ていろいろな文化体験ができたことも忘れられない。まず、今でもまだ記憶に残っている1月にあった飴市。日本語教育学科の友達と一緒に飴を売ったり、いろいろな行事を見に行ったりした。華やかに飾り付けた神輿を担いで松本を巡回する人々と交じって楽しんだ。韓国は地域別に多様な祭りがあるが、よく知られていないため、多くの人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く活性化されていない

と思う。現代の祭りは宗教的、信仰的な基盤を失い、人工的に企画され、娯楽性だけを強調するようになり、参加する人々は単純な聴衆、観客になってしまったと思う。それで私にとってはなかなか体験しにくいことだったのでとても楽しかった。祭りということで仲間意識が強くなるし、違う国や地方の特色を表す機会にもなるからとても魅力的なことだと思った。

また、日本の一般的な家庭で自然に文化体験をしたことも楽しかった。先生から紹介してもらってホームステイをすることになり、新しい家族と一緒に食事したり、お茶を飲んだりしながら日本の文化と伝統についての話を聞いた。特に、節分の時が思い浮かぶ。悪い霊を追い出すために家のあちこちに煎った豆を撒く、豆撒きをお父さんと一緒に行った。その後は家族の健康を祈りながら自分の年齢と同じ個数だけ煎った豆を食べた。初めてのことで緊張もしたけれども今は記憶に残る一日だったと思う。

私が日本について学ぶ立場ではなく逆に韓国のことを紹介する機会が多かったことも嬉しかった。その中の一つは、韓国の料理会を開いたことだ。最初はただ参加する立場だったけれども今年からは私が中心となってすることになった。何かを引き受けてやっというしながら責任感を持って行動する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を感じ、日本と韓国の学生たちが一緒に料理を作りながら交流を深めることができやり甲斐があった。

もう一つは、何人かの友達に韓国語を教えたことだ。これは私にとってプラスになる経験だった。日本語で説明しながら日本語の実力の向上にも役に立ち、お互いの国や言語について話し合いながらもっと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思う。

私にとって信州大学での一年は本当に貴重な経験だったと思う。留学に来なかったら得られない多くのことを身に付けることができた。その中で、まず、異文化に対応できる力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思う。韓国と日本は似ている部分も多いけれども違う部分もよくある。初めて日本に来て生活しながら戸惑いも多かった。私の中で日本人は集団よりは個人中心的だという偏見を持っていたし、「はい」か「いいえ」かどっちかをはっきりとしない態度も正直に言って少し理解できなかった。でも時間が経っていろいろなことを学んで、私の考えは変わった。日本はアメリカのような多民族国家ではなく、摩擦を避けようという意識が伝統的にあることがわかった。他にも相手の気持ちや立場を考えながら発言しようとするため、どうしてもはっきりと自分の意見を言わ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傾向があることもわかった。そして実際に日本人と話してみることで相手がどちらを意味するのか会話の流れで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

国が違くと文化も慣習も違うから異文化として認めて理解する姿勢、そして日本人の思考と文化を展開する基本的な手段である日本語の勉強が日本を理解することにおいてもっと役立つと思う。そして、いつも私の面倒を見てくれた家族が

いない所で一人で暮らしたことで、誰にも頼らず自立すること、何でも一人でやってみるという自信を持って生きるべきだと思った。

日本でのこの一年間の留学は私の人生で貴重な財産になるだろう。韓国に帰ってもここで感じたこと、思い出、いい人々との出会いなどすべてを忘れず、これからも頑張っていきたい。

## 신슈대학에서의 일년간의 유학생생활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신슈대학교 교환학생  
가톨릭대학교 언어문화학부 3학년 박지연

교환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신슈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뻐다. 일어일본문화 전공인 나는 이전부터 일본에서 유학하고 싶었다.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문이다. 2003년 10월 1일, 드디어 마츠모토에 도착했다. 역까지 마중나와 준 일본인 친구들과의 첫대면. 그제서야 내가 정말 일본에 유학 온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 분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년간의 유학생생활에서,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가능한한 많이 체험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선 일본의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곳 하코네. 하코네의 오와꾸다니에서는 침몰해있는 협곡과, 유황연기, 증기에 둘러싸여있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일본인들이 왜 이 화산지대를 지옥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묘한 분위기를 느꼈다. 또, 한국에서 일본영화 러브레터를 보고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 홋카이도가 기억에 남는다. 새하얀 눈을 실컷 만끽했고, 밤에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삿포로의 야경을 감상했다. 여행을 통해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 분위기를 느끼고, 일본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볼수 있었던 점 등 좋은 추억이 되었다.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보러 갔던 적도 있다. 다양한 무늬와 색채를 보고 새삼스럽게 기모노의 아름다움에 반했다. 특히, 보통의 기모노와는 또다른 오키나와 지방의 의상과 머리모양, 그리고 고전무용은 매우 인상깊었다. 또, 일본우키요에 박물관에도 갔다.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고있지 않지만 우키요에를 보고 에도시대 사람들의 일상의 즐거움이 잘 그려져 있다고 생각했다. 우키요에를 감상함으로써 지나간 옛날 일본인들의

풍속과 관습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와서 여러가지 문화 체험이 가능했던 것도 잊을 수 없다. 우선,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1 월에 있었던 아메이치. 일본어교육학과 친구들과 함께 아메(옛)을 팔기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보러 가기도 했다. 화려하게 장식한 미코시를 메고 마츠모토를 순회하는 사람들과 한데섞여 축제를 즐겼다. 한국은 지역별로 다양한 마츠리가 있긴하지만, 잘 알려져있지않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것이 어렵고 따라서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마츠리는 종교적, 신앙적인 기반을 잃어 인공적으로 기획된, 오락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참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청중, 관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매우 즐거웠다. 마츠리를 통해 동료의식이 강해지고, 다른 나라 혹은 지방의 특색을 표현하는 기회도 되어 매우 매력적인 행사라고 생각했다.

또, 일본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체험을 했던 일도 즐거웠다.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아 홈스테이를 하게 되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절분 때가 떠오른다. 나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에 볏을 콩을 뿌리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행했다. 그 다음은 가족의 건강을 빌면서 자신의 연령과 같은 개수만큼의 볏을 콩을 먹었다. 처음 해보는 일에 긴장도 했지만 지금은 기억에 남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일본에 대해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도 많았던 것이 기뻐다. 그 중에 하나, 한국요리회를 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참가하는 입장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무언가를 맡아서 해나가려고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것의 중요함을 느꼈고,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교류를 깊게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꼈다.

또 한가지는, 몇명의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어로 설명하면서 일본어의 실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었고, 서로의 나라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대해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신슈대학에서의 일년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유학오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그 중에서 우선, 이문화에 대응가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 처음 일본에 와서 생활하면서 당황한 적도 많았다. 나는 일본인은 집단보다는 개인중심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무언가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점도 솔직히 말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가지를 배우면서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도 아니고, 마찰을 피하려고하는 의식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상대의 기분과 입장을 고려해 발언하려고 하기때문에 아무리해도 확실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과 자주 이야기 해보면서 상대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라가 다르면 문화도 관습도 다르므로 이문화로서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 그리고 일본인의 사고와 문화를 전개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일본어의 학습이 일본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돌보아주던 가족이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않고 자립할 것, 뭐든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느꼈다.

일본에서의 이 일년간의 유학은 나의 인생에서 귀중한 재산이 될것이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여기에서 느낀것, 추억,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 전부를 잊지않고, 이제부터도 더욱 분발해 나가고 싶다.